

우리민족의 ‘근대인쇄’ 시기를 따지자면 해방 이후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해방 이전에는 근대식 인쇄가 별로 없었고 그나마 일제가 운영하던 인쇄소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 해방 이후의 인쇄역사 기록을 찾자면 1954년에 창간되어 오늘날까지 발행되고 있는 인쇄신문이 유일하다. 이에 본지에서는 지난 역사를 더듬어 보는 의미에서 1950년대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인쇄역사를 월별로 정리해 시리즈로 보도한다. 이번 호에는 1954년 이후 매년 1월에 보도되었거나 광고에 게재되었던 내용을 소개한다.

● 컴퓨터용지 출고가 7% 올라

1979년 1월 16일자 인쇄문화시보는 급격히 상승한 컴퓨터용지의 출고가 소식을 전했다.

시보에 의하면 한국제지가 생산공급하던 컴퓨터용지 경우 출고가격이 최고 7.71% 올랐으며 불투명용지의 출고가격도 16.74% 인상됐다. 관련상가에 따르면 컴퓨터용지 60g 짜리의 경우 종전 연당 32만790원에서 34만5530원으로 7.71%, 70g의 경우는 종전 연당 30만736원에서 4.77% 오른 31만5095원으로 뛰었으며, 불투명용지는 50g짜리가 종전 연당 35만3290원에서 무려 16.74%가 오른 41만2458원으로 인상이 됐다. 이같은 가격조정에 대해 제지회사측은 펄프값의 원자재 값과 인건비상승 등에 따라 출고가 인상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 인쇄물수출 더 늘려야

인쇄물수출 실적이 침체되는 가운데 새로운 품목의 개발을 위한 창의적인 경영마인드 확립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993년 1월 29일자 인쇄신문은 사설 형식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

인쇄신문에 따르면 1986년에 3700만달러로 시작하여 한때 8천만달러를 넘긴 인쇄물 수출실적은 1992년에 이르러 7천7백87만달러로 다시 하향곡선을 나타냈다.

수출이 하향세로 돌아선 이유로는 크게 세가지가 꼽혔다. 첫째 국제시장이 날로 세분화되어 고품질의 인쇄물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 둘째 선진국의 보호무역주의와 지역블록화형성으로 수출환경이 악화된 점, 마지막으로 공산체제의 붕괴로 중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의 저가공세 또한 상황을 악화시킨 주요원인으로 지적됐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변화에 대해 국내 인쇄사들이 속수무책이

라는 것.

특히 인건비가 매년 증폭되어 왔고 인력체계마저도 허술해 생산에 차질을 빚었으며, 해외시장의 정보부재와 바이어 관리 미숙 등 전반적으로 국내 인쇄사들이 경쟁적인 개혁요소들에 허점을 보여왔다고 인쇄신문은 분석했다.

자체여건상 수출로는 채산성이 맞지 않는다는 국내 인쇄사들의 호소에 대해 인쇄신문은 소핑백이나 다이어리, 성경책 그리고 품질면에서 상당한 수준을 인정받아 자체브랜드까지 형성하고 있는 일부 상업용인쇄물을 예로 들며, 수주체계의 과학화와 이미지개선, 납기일준수 등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활동이 지속되어야만 활로를 개척해 나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기획력의 중요성도 강조됐다.

인쇄신문은 수출에 참여하고 있는 많은 인쇄사들이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나 제분을 포함한 후가공분야에서 상품의 균일화와 안정화면에서 선진국에 밀리고 있다며, 부족한 경쟁적 요소를 메우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투자나 일시적이고 인기위주의 획일적인 정책이 아닌 장기적인 대안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대안으로 새로운 사고방식과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는 경영혁신 확립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제기됐다. 다시 말해 국제화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사고방식과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는 경영적 혁신이 내부로부터 뻗어 나와야하며, 새로운 품목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획력을 갖춰야 한다는 것.

특히 기획력에 대해 인쇄신문은 최고경영인이 리드를 하고 전 사원이 연구하는 자세를 갖춰나갈 때 더욱 쉽게 이루어지며, 창의적인 기획력 없이는 꾸준한 성장을 구축하기 힘들기 때문에 순위순 내수로 돌아설 수밖에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경영의 선진화와 경쟁력이 높은 인쇄사에 대해서는 정부도 각종 세제혜택과 환급제도개선 등 행정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 마닐라판지 품귀, 수요자 애먹어

마닐라판지의 품귀현상으로 수요자들이 현물을 구하지 못해 작업에 많은 차질을 빚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1979년 1월 16일자 인쇄문화시보는 마닐라판지 수요의 폭발적 증가로 대한 펄프, 삼양펄프, 대한판지 등 주요 생산업체들이 대리점을 통해 미리 수주량과 선입금을 받고 주문생산에만 치중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기사에 따르면 제조사들은 일단 주문을 받으면 20일후로 출고 조건을 붙이고 그것도 전액을 불입하는 조건을 내세워 종전까지 신용거래하던 중소기업자에게 큰 타격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서울 시중에서는 뒷거래가 성행하고 있고, 현물을 즉시 구해준다는 조건을 붙여 고시가격보다 비싼 값에 팔고 있는 실정이라고 시보는 전했다. 당시 거래가격을 살펴보면 코탕 400g의 경우 고시가는 연당 3만8150원인데, 반해 실제 거래가격은 4만3천원을 웃돌았으며, 이밖의 규격품도 일제히 높은 값에 출하된 것으로 알려졌다.

### ● 서울인쇄공단설립 시급하다

1992년 1월 1일자 인쇄신문은 한국인쇄사상 중요한 의미를 갖는 '서울인쇄공단(현 파주인쇄단지)'의 건설사업의 의의와 필요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보도했다.

인쇄신문은 이 사업이 우리 인쇄문화산업에 획기적인 발전의 발판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크게 주목되고 있다며 인쇄산업의 차세대 도약을 위한 피할 수 없는 숙원이자 야심찬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기사는 서울인쇄공단사업협동조합이 서울시내에서 한시간 거리인 경기도 일대에 서울인쇄공단 건설을 추진중에 있으며, 최근 심각한 경영난에 봉착한 인쇄산업이 첨단산업시대에 대비한 시설자동화, 대형화, 컴퓨터화 및 온라인체제화를 통한

품질고급화와 생산비 절감은 물론 인력난 해소를 위한 활로 차원에서 필요성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인쇄신문은 모든 산업분야가 하루가 다르게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반면 국내인쇄산업은 64%가 협소한 주거 및 상업지역에서 영업하고 있고, 76%가 임차공장으로 시설의 확장과 현대화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기업안정도 마저 크게 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쇄공단이 건설될 경우 서울시 도시환경정비에 부응할 수 있고, 지역균형 발전으로 지방자치의 재정자립도가 크게 향상됨은 물론 공동시설투자에 따른 투자비 절감 및 작업환경 개선을 통한 생산성의 향상 등을 기대효과로 거론했다.

### ● 용지 값, 부르는대로

품귀현상이 심화되면서 백상지 아트지의 소매값이 부르는대로 시세가 매겨지는 상황이 발생했다.

1979년 1월16일자 인쇄문화시보는 지류의 구덕난이 더욱 심해지면서 이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폭발적인 수요를 생산이 따르지 못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설명했다. 기사에 따르면 아무리 단골거래처라도 주문을 하고도 2개월 이상을 기다려야 하며, 또한 기다려도 필요한 수량의 절반도 구입할 수 없는 등 품귀현상이 심각했었다.

시보는 이 기회를 이용하여 용지를 보유하고 있는 소매상들이 가격을 멋대로 조작, 서울 부산 대구 등지에서 백상지 70g의 경우 연당 1만5천원까지 부르고 있어 며칠사이에 1천원 이상 급등했다고 전했다. 이 같은 기현상은 각 메이커의 증설본이 출회될 이듬해 봄이 되어야 다소 해소될 것으로 시보는 내다봤다.

김치원 기자 kcw@print.or.kr